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10월 10일(금)
--(윤력 8월 19일)--
Пятница
10 октября 2025 г.
№ 40 (1215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10월 12일은 농업 및 식품가공산업 종사자의 날이다.

러시아에서는 10월 두 번째 일요일을 농업 및 식품가공산업 종사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개인 기업인 서영희 씨는 노이트로이츠코에 마을에 위치한 농장 '클로버'의 대표이다.

주된 영농 활동은 농작물 재배로, 감자와 채소 재배를 위한 여러 농기계를 갖고 농업을 하고 있다. 또한, 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현대식 채소 저장시설을 운영 중이다.

서영희 대표는 1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왔다. 본래 전공은 초등교육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사범전문학교를 졸업한 교사자격증 소지자다.

올해 감자와 채소의 수확량은 괜찮은 편이다. 현재는 한국 씨로 재배한 배추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테크니크'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서영희 대표는 농업에 공헌한 바가 인정되어 사할린주 농상업부의 표창장과 러시아 농업부의 감사장을 받았다.

(취재: 이예식 기자)

존경하는 농산업 및 식품가공산업의 근로자 여러분!

10월 12일 농산업 및 식품가공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날을 맞아 여러분에게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신선하고, 맛있는 식품들을 주민들에게 공급하시는 여러분의 힘겨운 노고는 강인한 체력과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사할린주의 농산업은 번창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추수와 사료 생산시설에 기후적 조건이 혹독하고, 위험이 초래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 지역 생산의 신선한 채소와 달걀과 우유, 육류, 제빵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해가 갈수록 우리 지역 농산물이 주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에 첨단기술공법을 도입하고, 생산력을 개선시키며, 육체노동을 줄이고, 농산업단지를 가스연료로 전환해 자동화하면서 식품가공량을 증가시킨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사할린주 정부는 앞으로도 농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청년 전문가들의 양호한 생활여건을 조성하면서 농촌마을에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 종사자들과 식품 생산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을 감당하시고, 확고부동함을 보여주시며, 앞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농산업 및 식품가공산업 분야 종사자 여러분에게 강건함과 가정의 번영과 시작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농산업 및 식품가공산업 분야 종사자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천연가스연료 차량 이용 시장에서 선도지역 중 하나

제14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가스포럼의 일환으로 열린 국무원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사할린주가 러시아의 천연가스 자동차연료 이용 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발전하는 지역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회의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얼마 전에 승인한 2035년까지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천연가스 차량 확대,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요를 증대하고 국내 경제의 유망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사할린주는 가스 생산지역으로서 이 장점을 활용하여 대중교통의 80%

를 이미 가스로 전환했으며, 2028년까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지역의 환경친화적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사할린주는 2020년부터 지역 예산으로 화석연료 차량 구매를 금지하고 '가스프롬'과의 협력하여 천연가스 자동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섬 내 천연가스 충전소 가동률은 80%를 넘어서 러시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할린 지역에서는 차량을 친환경 가스연료로 전환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 러시아 청년포럼 <오스트로와> 기획-우승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발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청년과 아동> 국민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포럼이 개최되었다. 10월 4일 (토)에는 러시아 청년사업청(로스몰로조위의 플랫폼)으로 개최된 <오스트로와> 전 러시아 청년포럼이 총결산을 진행한 가운데 '러시아청년사업청 장려금' 기획 경연에서 우승을 차지한 18개의 분야의 총 47개 기획들이 발표되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청년포럼이 러시아의 다양한 지역들에서 온 청년들에게 사할린주의 높은 전망을 펼쳐보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었다.고 참석자들에게 말하며 "한 주 동안 미래의 엔지니어들, IT-전문가들, 환경보호운동가들,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높은 잠재력을 확인했다. 우리는 전문성개발에 대해서는 논의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업을 소개하는 안내책자와 고용주의 채용 기준 등 기본적인 도구들을 만들었다.

포럼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인 스푸트니크에서 벌어진 영웅적인 사건들을 알게 된 것은 중요했다. 청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어느 지역에서 자신의 사회적 경력을 쌓아갈지 계획을 세우고, 그 지역에 뿌리 깊은 전통과 용맹스러움과 강인함을 이해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강대국이다. 우리 앞에 달성해야 할 목표가 많은데 우리가 함께라면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주일간 다양한 지역들에서 온 청년들은 지역의 특성들 충분히 탐구하고, 주지사와 지역 장관들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며, 기업을 방문하고, 전문성개발의 담당자들과 교류할 뿐만 아니라 '진로 안내자'라는 용어의 의미를 정리했다.

학생들, 대학생들, 청년 전문가들은 '러시아는 - 기회의 나라' 와 '로스몰로조위.프로피'의 대통령 지원 플랫폼인 <쁘로프라즈위찌예(전문성개발)> 전 러시아 기

획으로 청년 취업을 위해 전망 높은 사할린주 기업들의 안내책자를 만들고, 기업들의 '매력적 요소를 조직화한 정보세트'를 작성하며, 취업에 결정적이 될 수 있는 추가 규정을 제시했다.

장려금이 지급되는 기획 공모전 수상자는 고용주와 입법부 및 행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선정했다. 기획공모전의 총 장려금은 5백만 루블리가 넘는다. 청소년 공동체개발과 문화와 교육, 환경보호 및 자원봉사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 실행에 대한 장려금은 러시아 중부와 극동지역의 참가자들이 받았고, 수상자들 중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네프체캅스크,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 우파, 카잔, 모스크바에서 온 학생들이 포함되었다.

사할린주 수상자로서 흠스크에서 온 카테리나 미헤예와는 <사회환경을 개발하라>부문에서 9만 루블리의 장려금을 받았고, <기회를 창출하라>부문에서는 바쉬코르스탄 공화국에서 온 무밀 사디코브가 석유 및 가스 산업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개발하길 원하는 15세 -17세 연령의 우파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기획이 수상했고, <기억하라> 부문에서는 네프체캅스크에서 온 야나 예고로와의 <역사의 브라스필(윈들라스: 작동 제어장치)> 군 - 애국적 공간 기획이 전망 높은 것으로 평가돼 '로스몰로조위'의 장려금을 받았다. 가장 큰 장려금 수상자는 IT-청년전문가로서 <힘노트 - 2상 교류시스템>이라는 기획을 발표한 카잔에서 온 루슬란 미스바호브가 받았다. 2025년 <오스트로와> 전 러시아 청년포럼에는 전 러시아 75개 지역들에서 온 참가자들을 비롯해 전문가, 자원봉사자, 조직자 620명이 참석했고, 이 대규모 행사는 '로스몰로조위(러시아 연방 청년사업청)'와 사할린주 정부가 주최했다.

2026년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구독료는 885,9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신문 발행 표에 따라 새고려신문 다음 호는 2025년 10월 24일에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사 편집부)

Сообщаем, что согласно графику выхода газеты следующий номер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ыйдет 24 октября 2024 г. Редакция

8월 중순,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의 신임 소장 으로 **국장현** 외교관이 부임했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국 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 소장님을 우리 신문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우선 출신지와 전공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으며, 대학에서는 영어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 외교부에 지원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신지요?

- 외교관에 지원한 이유는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 세계와 소통하고 한국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소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넓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출발점이었지만, 점차 한국의 외교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길이 제 인생의 소명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보람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 그동안 어디에서 근무하셨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저는 25년간 대한민국 외교부 본부, 러시아 및 CIS 국가, 그리고 서남아시아 국가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사할린에 발령되기 전 마지막 근무지였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경험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현지 고려인 동포들이 3~4천 명 규모로 모이는 추석, 설날 같은 대규모 행사의 열기와 정이 남다르죠. 각 나라에서의 경험과 추억은 제게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 최근 한-러 관계에서 사할린의 위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사할린 주정부와의 교류는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신지요?- 현재 한-러 관계의 큰 틀은 양국 정부 간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국장현 소장: "공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할린 한인동포 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 과제이지만, 그 안에서 사할린과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교류를 모색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노소브 사할린주 외교 대표와 그루제브 사할린주 투자·산업·대외관계부 장관님을 만나 인사와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9월 25일에는 코르사코브에서 열린 극동 에너지 국제 포럼에도 참석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에서도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열린 이 포럼은 사할린의 주요 산업인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죠. 이러한 접촉을 통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에너지, 자원,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 소장님께서 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근무하시며 고려인 역사와 사회 활동을 잘 아실 텐데, 사할린 한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네, 러시아와 CIS 국가에 근무하며 고려인 동포사회의 역사와 활동을 접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할린 한인동포 역사는 또 다른 맥락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한인동포 분들을 만나 직접 듣고 배우면서 더 깊이 이해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곳 동포단체들의 여러 행사도 가보았는데 우즈베키스탄과 비교적으로 작은 행사지만 정말 재미 있었습니다.

- 사실 현재 사할린 한인 동포 사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인데, 소장님께서 사할린한인연합회가 개최한 라면 축제에도 찾아가시고, 사할린주한인협회의 김치축제에도 참



석하신 점을 볼 때 편향되지 않게 지지해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저도 사할린에 있는 한인동포분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단체들을 합치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 한인연합회 행사에도 모두 참석하며 균형 잡힌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갈등 요인이 무엇인지 이해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그 간격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 사할린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할린에서 우리 공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할린 한인동포 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인 동포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한국과 사할린 간 경제, 문화 교류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원, 관광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발굴해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 한국과 직항이 없는 것은 사

할린 동포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영주귀국하신 어르신들,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사할린을 방문하기 어렵고, 사할린에 계신 동포들도 한국에 계신 가족을 만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출장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연로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과 사할린을 오가시기 어렵다는 점은 큰 과제입니다. 저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나라 관계 기관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 오신 지 아직 두 달도 안 되었는데, 적응과 현황 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요?

- 사할린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따뜻한 시민들 덕분에 생활 여건이 무척 좋습니다. 아직 배우는 과정이지만, 코르사코브, 네웰스크, 홀스크 등 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사할린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한인동포분들을 직접 만나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소중한 경험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 소장님께서 러시아어를 잘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배우셨는지요?- 아무 탈 없이 잘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계속 공부하며 현지에서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은 적은 없고,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배웠습니다. 사할린에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 가족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 저는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현재 사할린에는 제 아내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아들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취미와 여가시간을 여기서 어떻게 즐기고 계신지요?

- 저는 주말에 사할린의 아름다운 산과 공원에서 산책과 트레킹을 즐기고 있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산타 리조트 인근을 걸으면서 이곳의 자연을 만끽하고 있죠. 사할린이 친환경적이어서 좋아요. 그리고 고르니 워즈두흐 스키장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트레킹에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웃음) 또, 바다가 가까워서 기회가 된다면 바다 낚시도 하고 싶습니다. 사할린 한인동포분들과 함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또한 가끔 넷플릭스에서 역사 다큐멘터리, 길지 않은 영화 등을 보는 것도 좋아요.

- 좋아하시는 명언이나 표현, 좌우명이 있다면요?

- 제가 좋아하는 말은 '인생을 강물처럼 살자'입니다. 강물은 묵묵히 흐르며 주변을 적시고 생명을 살리듯, 저 또한 제 길을 걸으며 작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새고려신문 독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이 지면을 통해 사할린 한인동포 여러분께 인사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한인동포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며, 자주 뵈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인 동포사회가 더욱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대중교통 이용 혜택 제공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에게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사회교통카드제도가 마련되었다.

학교 학생들에게는 특별 교통카드로 도심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초등학교 1학년생들에게는 학교에서 교통카드를 지급하여 졸업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연금수급자들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교통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야 한다. 시 사회정책의 엘위타 유르코와 국장에 따르면 올 초부터 232장의 카드가 시민들에게 발급되었고, 교통카드는 별도로 구매하거나 사할린 주민 통합카드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우대교통카드는 참전용사, 장애를 가진 주민, 장애아와 보호자,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피해자, 소련 및 러시아 명예 유공자, 재활치료자, 정치탄압의 피해자, 노동전선의 근로자, 다자녀 가구, 전물장병의 부모 등 70세 이하의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의 시민들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주민지원센터(포그라니츠나야 거리 .33번지)에서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복지카드 발급 상담 문의는 사회정책청 (주소: 콤포소몰스카야 거리,169, 3호 사무실. 전화: 300-721 이 300-713)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ействуют льготы на проезд в автобуса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ействует система социальн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карт, которая помогает разным категориям жителей экономить на поездках. Для школь-

ников предусмотрен бесплатный проезд в городских автобусах по специальному проездному.

Первоклассникам такие карты выдают прямо в школах, и они действуют до окончания обучения.

Пенсионеры могут оформить социальный проездной, который позволяет ездить без ограничений.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ежемесячно пополнять карту на фиксированную сумму. Как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городск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Эльвира Юркова, с начала года горожанам выдали 232 карты. По ее словам, проездной можно оформить как отдельно, так и привязать к Единой карте сахалинца. Право на льготы получают жители до 70 лет из ряда категорий: ветераны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люди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дети-инвалиды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их лица, пострадавшие от аварии на Чернобыльской АЭС, почетные доноры СССР и России, реабилитированные и подвергшиеся политическим репрессиям, ветераны труда, многодетные семьи, а также одинокие родители погибш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Горожане старше 70 лет могут ездить в автобусах бесплатно.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оформить проездной в Центре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населения на ул. Пограничной, 33.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оформлению социальных карт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в департаменте соцполитики по адресу: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69, каб. 3 либо по телефонам 300-721 и 300-713.

'자초트' 대학생 카페, 최초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점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대학생 카페 '자초트'가 10월 3일 새로 개점했다. 이 카페는 사할린 기술서비스 건물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교과과정 기획으로서 이곳에서 미래의 요리사들이 실습을 진행하고, 이곳 방문객들은 국가선정기준에 따라 준비되는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시청 측이 전했다. 대학생들에게는 실무 경험과 공식 채용으로 임시 근로를 할 뿐만 아니라 근로 경력의 첫 근무지로 기록된다. 메뉴에

는 따뜻한 요리와 커피, 고명을 넣은 블린치키, 즈라지(고기 롤라드) 등 다양한 메뉴들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천연의 재료로 요리가 완성된다. 카페의 분위기는 쾌적하고, 진정 대학생다운 분위기이다. 시행정부는 학생과 대학생들의 자기실현을 위한 전문적인 성장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유사한 기획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카페 '자초트' 위치는 포그라니츠나야 거리 5 번지 사할린 기술서비스 옆에 있다.

Первое в регионе студенческое кафе «Зачет» откры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и новое студенческое кафе «Зачет». Заведение открыли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ервиса. Это учебный проект, где будущие повара проходят практику, а посетители могут насладиться вкусной едой, приготовленной по ГОСТу.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город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туденты получают не только практический опыт и временную работу с официальным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но и первую запись в трудовой книжке. В меню — горячие блюда и полезные полуфабрикаты: котлеты, блинчики с начинками, зразы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все готовится из натуральных продуктов по строгим стандартам. Атмосфера в кафе уютная и по-настоящему студенческая.

Город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оддерживает подобные проекты, создавая условия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оста и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Кафе «Зачет» расположено рядом с техникумом по адресу: улица Пограничная, 5.

사할린 <어머니 사랑의 예술> 창작경연, 참가신청 접수

사할린주에서 <어머니 사랑의 예술> 창작경연이 시작되었다.

(8면에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행사 성료 다큐 영화 <토박이> 상영 · 서적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 호응

지난 10월 5일(일) 사할린 주과학일반 도서관에서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됐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립중환)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를 이뤘다.

행사장에는 사할린 한인 역사의 조명을 밝히는 사할린, 러시아 등 역사학자들의 서적과 사할린 출신 동포 작가들의 문학 작품, 사할린 화가들을 소개하는 책 등이 전시되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사할린 역사학자 진 울리야 준박사가 책 전시에 대한 해설을 진행했으며, 올해 10월 6일에 맞은 한국의 대표 명절 '추석'의 유래와 의미를 간단히 설명했다.

이날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도카 안톤 감독, 하 세르게이 프로듀서의 다큐멘터리 영화 <토박이> 상영이 마련됐다. 사할린 한인들의 삶과 역사를 담은 이 영화는 관객들의 큰 감동을 자아냈다. 150석을 준비했으나 약 170명의 관객이 몰려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다. 상영 후에는 관객들이 제작진을 향한 감사 인사와 질문을 이어갔다.

또한 전통 한복을 종이로 접어 만들어 보는 '종이 한복 만들기' 체험 교실도 진행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는 2022년부터 매년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형식의 문화 행사를



를 꾸준히 펼치며 이름난 하인 소개, 한민족 문화 전송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사할린 동포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6

KIN(지구촌동포연대, 대표 최상구)는 해마다 사할린동포들을 위해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을 제작해 사할린에 보낸다. 이를 위해 카카오같이가치에서 모금운동을 펼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아래 카카오같이가치에서 실린 모금 소개글을 게재한다.

해방 80년, 그러나 사할린 동포에게는 미완의 해방이다!

올해는 을사늑약 120년, 해방 80년, 한일협정 60년 한소수교 35년이 해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된 동포가 있습니다. 바로 사할린 동포입니다. 사할린. 지금은 러시아 사할린주의 섬이지만, 제국주의 시기에는 러시아, 청나라, 일본의 경쟁으로 땅의 주인이 계속 바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동진하던 러시아와 일본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러일전쟁으로 북위 50도를 기준으로 남사할린을 일본이 할양받게 됩니다. 본래 사할린섬은 님프, 우일타, 아이누, 예벤크 등 원주민들이 곳곳에 살던 곳으로 일본식 지명 '가라후토' 역시 아이누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경쟁으로 인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일본의 남사할린 개발과 식민지 조선인의 강제동원

일본은 1907년 '가라후토청'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식민지 개발을 합니다. 이미 1920년대에 조선에서 광부를 모집하여 카와카미 탄광에 보내기도 하였고, 탄광, 임업(벌목), 제지공장의 삼일일체로 남사할린을 개발합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일본의 경기회복과 1937년 중일전쟁으로 석탄 수요가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국가총동원령으로 늦그릇부터 사람까지 식민지 조선의 모든 것을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하였습니다. 일본의 통계에 따르면 남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최소 16,113명으로 확인되었고, 대략 3만 명이 강제동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39~1943) 그리고 동원된 직종을 보면, 석탄 광산이 10,505명, 금속 광산이 190명, 토목건축이 5,414명으로, 전체의 3분의 2에 가까운 10,699명이 탄광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조선인들은 탄광뿐만 아니라 각지의 토목건축 공사장과 벌목장, 비행장 등의 군사시설 구축에도 동원되었지만,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강제동원 조선인의 더욱 정확한 동원 규모, 임금 체계, 생활실태 등은 불분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지도로 보는 강제동원, 사할린 오지제지 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동포

소련이 점령한 남사할린은 1946년 소련에 편입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이 남사할린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할린에 남아있던 대다수 일본인은 1946년과 1958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귀환하였지만, 조선인들은 남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을 일본 호적에 등재된 사람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일본인 처를 두었던 조선인과 그 자녀 1천 5백여 명이 일소수교 재개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서 사할린 동포 귀환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소련은 사할린에 남겨진 조선인이 많지 않아 송환을 검토하였으나 갑자기 섬에서 살던 선주민

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 공백과 각종 일본의 생산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조선인들을 천천히 보내기로 했지만,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으로 인하여 조선인 송환은 실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1988년 서울 올림픽과 1990년 한소수교까지 대다수의 고향이 경상도인 사할린 동포들은 그리운 가족들과 고향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사할린에서 정착했고, 가슴속 깊이 한을 품고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귀환의 못다 한 꿈을 민족문화 계승으로 승화한 사할린 동포들

40여 년을 소련에 살면서 이들에게 민족문화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동포만 모이기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며칠씩 큰 잔치를 하여 동포들끼리 모였고, 돌잔치를 하고, 환갑잔치를 하고, 초상을 치르고, 제사를 지내며 자신의 뿌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동포들은 농사일도 열심히 하였는데, 이러한 동포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것이 음력이었습니다. 또한 섬이기 때문에 물때(밀물, 썰물시기)를 알아야 했습니다. 음력을 계산할 줄 아는 어른이 있는 마을은 해마다 음력 달력을 배껴가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할린 동포에게 전달하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달력

이렇듯 동포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음력 달력은 러시아에서는 구하기 매우 어렵지요. 한국처럼 연말에 달력을 나누는 풍습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할린 동포들에게 자그마한 새해 선물을 드리자는 의미로 달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듬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사할린 동포가 생활하는 러시아의 달력을 기본으로 하고, 한국의 국경일과 음력, 24절기를 넣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경일과 절기, 명절에 대해서는 짧지만 러시아어 설명을 통해 차세대 동포들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달력을 처음 전하던 2014년 한 할머니의 말씀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내 러시아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한국에서 우리들 줄려고 달력을 만들어 왔다고." 머리를 곱게 양갈래를 하고 비녀를 꽂은 이별령 할머니는 새해엔 돈보다 달력이 더 좋다 하시며 "잘 왔다. 잘했다"를 연신 말씀하셨습니다. 사할린주의 수도인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북서부로 400Km 떨어진 보쉬니아코보에도 달력을 전하고 왔었습니다. 다른 동포들이 다들 놀랍니다. 그 겨울에 아무도 거기 갈 생각은 안한다고. 그렇게 10여년을 달력을 보냈고, 코로나 시기에는 국내 영주귀국 동포들에게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사할린에 가지 못한 마음을 달래드리고자 했습니다. 해마다 음력이 필요한 사할린 동포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1세는 고작 3백여 명입니다. 그리고 3~4세 동포들은 러시아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달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느덧 10년 넘게 드리다 보니, 이제는 제법 기다리고 있는 1,2세 동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저하늘 어딘가에 살아 있지만 편지만 간신히 몇 달에 걸쳐 주고 받으며 살았습니다. 40여 년을 우리의 공동체로 품지 못한 채 떨어져 살아야 했던 동포들입니다. 그 아픔의 역사를 함께 위로하고 영주귀국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소중한 새해 선물을 함께 만들지 않겠습니까?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 한인' 문제 논의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고영순)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한반도 광복 80주년과 일본 근국주의로부 남부 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 80주년 기념하여 실용학술포럼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여러 지역과 카자흐스탄에 있는 사할린한인단체 대표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포럼 첫날인 10월 17일(금)에는 (사할린 한인의 문제: 실질적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하는 원탁회의가 열려 사할린동포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지원 방안과 사할린한인사회단체 간 협력 원칙을 논의한다. 또한 참가자들은 코르사코프의 망향의 언덕을 찾아 망향탑에서 참배할 예정이다.

10월 18일(토)에는 '사할린 한인의 통합'을 주제로 하는 콘퍼런스가 진행되어 '사할린 한인: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재한사할린동포 참여, 의료지원, 시민권 획득, 모국어교육과 문화보전, 세대 간 대화 등 공통의 현안들을 점검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전날 원탁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오후 세션에서는 청년을 위한 사업지원, 사회적 기업 발전 촉진 방안 등 경제적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사할린한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고 사할린한인연합회 측이 전했다.

(본사 기자)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낙규

관리번호	952694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입니다.		
성명	김낙규	한자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미상	사망년월일	1921-12-04
본적	미상		

공훈록

1921년 3월 이후 서간도 군비단(軍備團)은 본거지인 길림성(吉林省) 장백현(長白縣)을 떠나 이만에 집결했다. 이후 자유시참변(自由市慘變)을 피해 각지로 분산한 군인들 가운데 연해주에 모인 상해파 인사들과 연합해 독립군 양성을 추진했다. 이들은 1921년 9월 이만에서 고려의용군사의회를 조직하고 산하에 사관학교를 설립했다. 그리고 고려의용군사의회는 이 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은 생도들을 기반으로 대한의용군을 조직했다.

1921년 말 이만 남쪽 스파스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과 러시아 백군은 하바롭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첫 공격지점은 이만이였다. 1921년 12월 4일 대한의용군 제2중대는 이만을 방어하기 위해 이만전투에 참가했다. 이 전투에서 제2중대는 일본군의 지원을 받는 백군과 전투를 벌이다 3명의 생존자를 제외하고 전원 전사했다. 이때 제2중대 중대원이었던 김낙규도 이 전투에서 전사 순국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10월혁명 10주년과 쏘베트고려민족(십월혁명 십주년 원동기념준비위원회 편찬, 1927) 70~75면
- 러시아혁명기 원동해방전쟁과 한인부대의 활약(윤상원,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667~676면.

묘지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정리 이철수)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метили День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5 октябр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состоялся праздник, посвященный Дню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Для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работала книжная выставка, гд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труды сахалинских, российских и зарубежных историков, посвященные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писателей и работы местных художников.

Сахалинский историк Юлия Дин сделала небольшую аннотацию представленной на выставке литературе. Она также рассказала о традиционном корейском празднике Чхусок (День благодарения), который в этом году выпал на 6 октября.

Центральным событием вечера стал показ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Местные» режиссера Дока Антона и продюсера Ха Сергея. Картина, повествующая о судьба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е оставила зрителей равнодушными. Интерес к фильму оказался настолько велик,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150 мест, пришлось организов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ста – по оценка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в зале собралось около 170 человек. После просмотра зрители благодарили создателей фильма и задали им вопросы.

Также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ика прошел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традицио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остюма ханбок из бумаги.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ЮСМООК проводит День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ежегодно, начиная с 2022 года.

Наш корр.
Фото Ли Е Сика.

В Москве открыли памятник корейским партизанам

2 октября 2025 года главы оборонных ведомств России и КНДР Андрей Белоусов и Но Гван Чхоль открыли скульптурную композицию «Союзники. Антияпонские партизаны Кореи» на «Аллее союзников» у Главного храма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Ф в Одинцовском районе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Монумент посвящён подвигу корейских партизан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и приурочен к 80-летию Победы.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России Андрей Белоусов выразил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этот памятник станет данью памяти поколению победителей, важным вкладом в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равды.

«Этот памятник по праву можно назвать символом нерушимого братства наших народов. В годы жестоких испытаний вместе с

Красной Армией корейские товарищи шли к долгожданной победе, обретению независимости и возрождению Отечества», – заявил Андрей Белоусов.

Глава Минобороны РФ отметил, что памятник символизирует также вклад корейских бойцов в Победу, включая освобождение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Он передал лидеру КНДР Ким Чен Ыну миниатюрную копию скульптуры в знак союза. Но Гван Чхоль подчеркнул развитие все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и поддержку России.

В церемонии уча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обороны, Госдумы, МИД,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и «Юнармии», передает Telegram-канал Минобороны России.

9 октября – День корейского алфавита

Хангыль –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Кореи

«Язык — это история народа.
Язык — это путь цивилизации и культуры»

А. И. Куприн.

Мы часто слышим и читаем, с какими проблема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люди в некоторых странах из-з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Прибалтике, на Украине, было время – даже в Европе. И вот недавно на Генассамблее ООН в Нью-Йорке, когда британский журналист обратился к министру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 Лаврову с просьбой говорить по-английски, тот отметил, что русский язык являе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м языком наряду с другими, признанными в стенах ООН.

Полагаю, что подобные примеры ярко иллюстрируют положение языка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исьменности в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и народа, как носителя этого языка, а в XXI веке это явление, в силу извест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получило яркий политический подтекст. Язык и письменность, являясь культурным наследием своего народа, а в случае с русским языком —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народов, в современное время приобретают значимость культурного «оружия», так называемой мягкой силы.

И сегодня хочу обратиться к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для

большинства из нас,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одным является русский язык, но 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для нас не менее значим. Но что мы знаем о языке наших родителей, предков? Конечно, получить нуж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одним кликом, тем не менее попробуем поразмыслить – что тако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его письменность?

Хангыль – так звучит название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и переводится буквально: корейская письменность. Она не имеет аналогов, это уникальное творение челове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Алфавит не был заимствован из других языков и адаптирован, он был изобретен конкретными людьми в конкретное время, известна и цель создания алфавита.

Известно, что до середины XV века Корея не имела своей письменности, а использовала китайские иероглифы, доступные для высокой знати и ученых. Народ же оставался безграмотным и необученным. Но здесь вмешалась воля короля (вана) Седжона Великого (1418-1450 гг.), которого подобное состояние дел никак не устраивало. Именно его личностью, четвертого короля государства Чосон, его политическая воля, ну, и сложившаяся в то время политическая конъюнктура в Корею, стоят у истоков появления хангыля.

(Продолжение на странице 7)

К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десятое письмо с комментариям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забытый голос предков»

Редколлегия

20 февраля 1975 года
Сахалин, Холмск, ул. Победы, 23
Син Сан Гын (신상근)
Перевод: Ин Му Хак

Комментарии:

(1) Для корейцев 60-летний юбилей, который называется хвангап, – это гораздо больше, чем просто круглая дата. Это одно из самых значимых жизненных событий, глубокий культурный символ. Его корни уходят в древнюю календарную систему, где 60 лет составляют полный цикл сочетания небесных ствол и земных ветвей. Пройти этот цикл означало вернуться к своему году рождения и символически завершить большой круг жизни. В прошлом, когда средняя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жизни была меньше, дожить до 60 лет было настоящим достижением и признаком преодоления основных жизненных трудностей. Этот праздник, который дети традиционно устраивают для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 акт глубокого почтения 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за всю их любовь и тяжелый труд. Виновник торжества облачается в традиционную корейскую одежду, принимает от близких ритуальные поклоны, добрые пожелания и подарки. Главное угощение – рис и парное мясо – символизирует пожелание здоровья и долголет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хвангап – это не просто день рождения, а праздник семьи, уважения к старшим и радости от новой, мудрой поры жизни.

Юлия Дин, к.и.н.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иглашаю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ференци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инициативы, проекты, результаты»

13-14 ноября 2025 г.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итс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инициативы, проекты, результаты».

Организаторы конферен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вестици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внешних связ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ГБОУ ВО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нститут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ФГАУН «Институт Китая и современной Азии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Работа Конференции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а в рамках секций, посвященных актуальным проблемам развития отношений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субъек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государствам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их историческом контексте и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иглашают желающих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ференции.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конференции:

1.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инвестиции: обзор перспектив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привлечение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к реализации крупных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проек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опы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с корей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2. Иннов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и цифровизация: совместные разработки и внедрение иннов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

гий в энергетику, транспорт и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цифровых платформ дл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бизнеса двух регионо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для повышения эффективности управления ресурсами.

3. Культурные связи и гуманитарные контакты: история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на остров и особенности адаптации, повышение роли диаспоры в экономике и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регио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диаспоры с зарубеж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структурами, совмест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и нау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сохранение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культурные коды региона: наследие как ресурс развития.

Языки конференции: русский, английский, корейский.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октября 2025 г.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asiancenter@sakhgu.ru Заявка должна включать сведения об авторе, тезисы доклада объемом от 2000 до 3000 знаков. О результатах рассмотрения заявок будет сообщено 20 октября 2025 г. Полный текст доклада должен поступить организаторам не позднее 25 октября 2025 г. Требования к оформлению текстов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авторам одобренных заявок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о итогам конференции лучшие статьи по тематике конференции будут рекомендованы к публикации в журнале «Корееведение» ИКСа РАН.

Оргкомитет конференци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Ли Чжэ Мён: Проблема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 главный приоритет

«К сожалению,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хвачены глубоким недоверием, но проблема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остаётся главным приоритетом, над решением которого Южна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и должны работать сообща».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обращен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Ли Чжэ Мёна к участникам церемонии по случаю Дня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состоявшейся 4 октября. Её зачитал от имени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заместитель начальника упра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Им Ун Сун. «Мы будем работать над кардинальным решением этой проблемы посредством диалога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Президент пообещал «укрепить основу» для обмена членами семей, включая проведение ДНК-тестов, чтобы использовать генетическую информацию для возможного воссоединения семей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Мы сделаем всё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оцарился мир, и будем работать над тем, чтобы приблизить воссоединение хотя бы на один день, чтобы горе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не передалось будущим поколениям», - заяв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День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отмечается в РК с 2013 года за два дня до праздника Чхусок.

Президент США прибывает в РК 29 октября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бытия в РК 29 октября, накануне открытия саммита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ТЭС).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кругах предполагают, что он может встретиться с лидерами РК и Китая до открытия саммита АТЭС и покинуть страну, не приняв участия в основ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саммита,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31 октября - 1 ноября в городе Кёнчжу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График визита главы Белого дома в РК пока согласовывается, - сообщил агентству Ёнхап по телефону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Ожидается, что Трамп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саммите Ассоциации государств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АСЕАН) в Куала-Лумпуре 26-28 октября, а затем посетит Японию для переговоров с новым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страны.

LG Energy Solution возобновит командировки в США

2 октября компания LG Energy Solution объявила, что после праздника Чхусок планирует постепенное возобновление командировок её сотрудников в США. Она приостановила все поездки в СШ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4 сентября иммиграционные власти задержали 47 сотрудников компании и около 250 сотрудников компаний-партнёров на строящемся совместно с Hyundai Motor заводе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аккумуляторов в штате Джорджи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LG Energy Solution пояснил, что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посл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заседания с участи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вух стран. Компания также подтвердила, что владельцам краткосрочных деловых виз (B-1) и электронной системы авторизации поездок (ESTA) разрешено выполнять работы по установке, осмотру и техническому обслуживанию оборудования на заводах в США.

Суд отклонил ходатайство об освобождении Юн Сок Ёля под залог

2 октября Центральный окружной суд Сеула отклонил ходатайство об освобождении под залог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которы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ходится под стражей. В судебном решении говорится, что для удовлетворения ходатайства нет разумных оснований,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статьёй 96 Уголовно-процессуального кодекса. Пункт 3 данной статьи гласит, что залог должен быть предоставлен,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случаев, когда имеются достаточные основания полагать, что обвиняемый может уничтожить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подал ходатайство об освобождении под залог 19 сентября, ссылаясь на состояние здоровья.

Зданию Сеульского вокзала исполняется 100 лет

В этом году исполняется сто лет зданию Сеульского вокзала, которое является старейшим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м сооружением в стране.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с 30 сентября по 30 ноября в помещениях вокзала и на открытой площадке проходит выставка «Сто лет и один день: от памяти к воображению». В выставоч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соединяющем прошлое и настоящее, мож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историей вокзала, историческими личностями, которые пользовались его услугами, попробовать пиво, кофе и закуски, которые продавались на Сеульском вокзале в первые годы его работы, и послушать музыку. В 2004 году,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открытием высокоскорост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КТХ, было открыто новое здание вокзала. Старое здание было полностью отреставрировано, и сегодня оно выглядит так же, как и после открытия 100 лет назад.

RKI

«Тоннель Квиз»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Интеллект, культура и единство

28 сентября в премьер-бутике «Пространство by Avenue Apart» 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состоялась уникальная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ая битва — «Тоннель Квиз» (통일 퀴즈), что в переводе с корейского означает «объединени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Young Intellect Fest» и собрало яркую и разнообразную аудиторию.

Организатором выступило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е общество «СахКор»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к участникам обратился консул г-н Чо Сын Хи, подчеркнувший важность и значимость таких молодежных форматов для диалога культур и поколений.

Название квиза — «Тоннель» — полностью отражало его суть: это было объединение в самом широком смысле. За игровыми столами встрети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и даже поколений, чтобы проверить свои знания в истории, культуре, искусстве и даже кулинарных традициях Кореи.

В честный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й бой вступили шесть команд: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Ханнури», «Звезда», «Стильные тигры», «Kowin» и «Plan B». Вопросы требовали от игроков не только эрудиции, но и смекалки, быстрой реакции и чувства юмора.

После напряжённой борьбы звание сильнейшей по праву завоевала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составе: Дин Никита, Головай Виктор, Ким Евгения, Ан Ен Ок, Сон Александра, Сон Алика. Вс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или имен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и памятные призы.

Но «Тоннель Квиз» был больше, чем просто викториной. Это был настоящий праздник. Музыкальные паузы между раундами наполнили зажиг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ансамблей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Ханнури» и ансамбля каягым «Хаян Пам», хора «Бель» и группы К-POP школы Kowin. Гости отмечали душевную атмосферу, новые знакомства и возможность попробовать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рейские угощения.

Организаторы выражают искренню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сем партнёрам и гостям, кто помог сделать этот день по-настоящему объединяющим и незабываемым. Участники уже выразили надежду, что такие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е праздники станут в Петербурге доброй традицией.

Ха Дина, председатель СПб Общества «СахКо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На выставке в Пхеньяне показали, чем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готова ответить на угрозу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и

В столиц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ткрылась крупная выставка вооружений "Развит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обороны-2025", ставша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аналогом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оронных форумов и витриной достижений местного ВПК.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ходит в Пхеньяне с 4 октября и стало уже третьим подряд подобным показом - ранее выставки с аналогичным форматом проводились в 2023 и 2024 годах. В речи на открытии мероприятия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прямо указал, что страна готова жестко ответить на военную угрозу со стороны Вашингтона и Сеула.

Современное оружие и "сигналы" миру

На выставке "Развит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обороны-2025" представлены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ключевые систем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арсенала - от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и крылатых ракет до новейших беспилотников и бронетехники.

Среди ключевых экспонатов были баллистическая ракета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Хвасон-11Д" (화성-11마) с гиперзвуковой планирующей боевой частью - впервые показана публике;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е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Хвасон-18" и "Хвасон-19"; сверхзвуковая крылатая ракета, внешне напоминающая российскую ЗМ-54Э, которая, по оценкам, может поступить на вооружение новых эсминцев типа "Чхве Хён"; новая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баллистическая ракета подводн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противокорабельная ракета; боевой танк "Чхонма-II" (천마-II); новая РСЗО на мобильной пусковой установке, фотографии которой оказались засекречены; зенитный ракетно-пушечный комплекс, похожий на российский "Панцирь-С1"; аналог российского ЗРК "Сосна"; мобильные тактические ракетные комплексы, колесные бронетранспортеры с установленными минометами (аналог американского Stryker M1129); различные типы БПЛА, дронов-камикадзе и квадрокоптеров.

Зарубежные эксперты отметили, что Пхеньян сознательно собрал на одной площадке практически весь спектр вооружений, способных угрожать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е, тем самым демонстриру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прогресс и готовность к "асимметрическому ответу" на во-

енные союзы Вашингтона, Сеула и Токио.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Ким Чен Ына

Выступая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Ким Чен Ын заявил, что выставка отражает "последние достижения масштабной программы непрерывной модернизации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структуры военной мощи КНДР".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хеньян принял конкретные меры в ответ на наращивание Вашингтоном своего вое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в прилегающих районах, включая развертыван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ударных и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х средств.

"Для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интерес ключевых целей выделены специальные средства поражения", - заявил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Он призвал противников "должным образом оценить, в ка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изменяется обстановка в област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определить, может ли территория Южной Кореи быть абсолютно безопасным местом".

По его словам, дальнейшее наращивание военной активности США и игнорирование интересов безопасности стран региона лишь подтолкнет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к принятию новых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их мер для устранения угроз и поддержания баланса сил.

Реакц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аналитики восприняли выступле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ак прямое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Сеулу. Профессор Им Ыль Чхоль из Института пробле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Кённам в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гентству "Ёнхап" отметил, что выражение "территория Южной Кореи" означает явную угрозу американским базам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объектам на юге.

По его оценке, Ким Чен Ын пытается не только подчеркнуть военную мощь, но и оказать давление на администрацию Ли Чжэ Мёна, чтобы та не следовала безоговорочно в русле американской стратегии.

"Эта демонстрация силы несет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подтекст, - считает эксперт. - Она может быть направлена на то, чтобы вновь пробудить у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нтерес к прямому контакту, сыграв на его склонности к быстрым сделкам".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Названы проекты-победител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молодёжн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Va»

Итоги работы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молодёжн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Va» платформы Росмолодёжь.Форумы подвели на Сахалине. Масштабное событие, проходивше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ёжь и дети». В последний день форума участники целевых групп «Школьники», «Студенты» и «Работающая молодёжь» защищали проекты перед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органов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Апофеозом стало награждение лучших во время заключительной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Совместно с Всероссийским проектом «Профразвитие» президентской платформы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и Росмолодёжь.Профи участники разработали каталог предприятий региона, перспективных дл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молодёжи. Школьники, студенты и молодые специалисты работали над тем, чтобы определить, какие факторы делают работодателя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и какие условия особенно важны для молодёжи при выборе будущей карьеры. Девушки и юноши отвечали на вопросы: в каких компаниях они хотели бы работать и почему, ка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на Сахалине вызывают их интерес, а также определяли критерии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работодателя — от жилья и социальных гарантий до возможностей карьерного роста. Участники составили «матрицу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компаний и предложи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критерии, которые, по их мнению, могут стать решающими при выборе работы.

Форум «ОстроVa» стал для нас уникальн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показать молодёжи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какие перспективы открывает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 эту неделю я лично убедился в высоком потенциале участников — будущих инженеров, IT-специалистов, эколого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Мы не просто говорили 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развитии, а создавали конкрет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каталог предприятий региона, критерии выбора работодателя. Важно, что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ребята узнали и о героических событиях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 это часть нашей истории. Молодые люди должны знать, на какой земле они планируют строить свою карьеру, понимать традиции мужества и стойкости, которые здесь укоренились Россия — великая держава. Впереди много вершин, и мы достигнем их вместе, — обратился к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форума получил план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За неделю молодые люди погрузились в специфику региона, неоднократно встречались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и региональными министрами, выезжали на предприятия, а также общались с проводникам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Также ребята сформулировали значение термина «Проводник карьеры».

Наша молодёжь протестировала существующие сервис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которые уже есть в стране, и которые ежегодно создаются. Они разработали критерии и номинации отбора лучших платформ.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мы объявим премию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ОстроVa» для разработчиков таких сервисов, а участники нашего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нут в том числе проводникам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и разработчики,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ожепенько.

Команда Анны Жеребцовой работала по треку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олодые специалисты представили проект внедрения эффективной системы оценки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 2030 году. Как отметила сама Анна, проект позволит жителям острова грамотно подходить к решению квартирного вопроса.

К сожалению, не все жители обладают инженерным образованием и могут определить качество новостроек. Многие, лишь когда начинают в них жить, понимают: где-то стены промерзают, где-то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едостаточно, то есть, возникает ряд проблем. Наша же система будет объединять заказчика, управляющую компанию, жителя и органы власти. У нас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регулярная инспекция с оценкой качественных факторов. Например, это тепло-техническ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остекление, толщина утеплителя, все материалы,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уются. И результаты всех проверок будут доступны любому пользователю. Так жители региона смогут понять, какую квартиру им выбрать, — поделилась девушка.

Некоторые участники уже по итогам форума готовы связать своё будущее с островным регионом. В их числе — Илья Тюленев из Краснодара. Слушатель направления «Добыча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в категории «Рабочая молодёжь» приехал на «ОстроVa» с целью получения знаний, но уже по ходу программы обучения скорректировал её: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открыл для себя перспективы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Моя специализация — нефтегазовое дело, поэтому я точно знал, куда еду, ведь на Сахалине — одни из лучших условий труда для та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Я

уверенно смотрю в будущее, планирую улучшать свои компетенции и заводи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знакомства, — поделился Илья Тюленев.

На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были объявлены победители публичных защит конкурса Росмолодёжь. Гранты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молодёжн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Va». Всего до защиты допустили 47 проектов по 18 направлениям, а общий фонд конкурса составил 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роекты, получившие поддержку, представляют широкую географию — о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о центральных областей России. Среди победителей — участник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ефтекамска, Петропавловска-Камчатского, Уфы, Казани и Москвы. Грантовая поддержка позволит им реализовать собственные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идеи,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развитие молодёжных сообществ, продвижение культур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экологических и волонтерских инициатив.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бедительницей стала Катерина Михеева из Холмска. Она получила 90 000 рублей в номинации «Развивай среду». В номинации «Создавай возможности» грант получил Румиль Садыков из Республики Башкортостан. Проект студента направлен на старшекласников из Уфы от 15 до 17 лет, которые хотели б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развиваться в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Среди победителей — не только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ые, но и экологические проекты. Так, эколог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й арт-объект «Белемне сакла» Алексея Киселёва из Республики Татарстан получил грант на реализацию.

Участница из Нефтекамска Яна Егорова представила инициативу в номинации «Помни». Её проект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Браншпиль истории» был признан перспективным и получил поддержку от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Наибольшую сумму грантовой поддержки получил молодой IT-специалист из Казани Руслан Мисбахов и его проект «Химнот: Двухфазный заряд».

Всего в форуме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порядка 620 участников, экспертов, волонтеров, организаторов из 75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Всероссийский молодёжный форум «ОстроVa» платформы Росмолодёжь.Форумы организован Федеральным агентством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Росмолодёжь) совместно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тили лучших работников системы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тили 85-летие системы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Чествование лучших педагогов, наставников, мастеров, ветеранов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шло в з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ероприятие собрало более 150 человек.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ячеслав Аленков приветствовал почетных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 Стабильность и стойкость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во многом определяются именно вами — теми, кто сегодня стоит у истоко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тановления молодёжи. Есть такое почетное звание — Мастер. И это звание по праву принадлежит вам, дорогие наши наставники, — подчеркнул Вячеслав Аленков. — От лица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этим большим праздником.

Четырнадцать работников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лучили ведомственные награды из рук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сего в рамках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дили 121 человека. 10 человек получили Почетные грамоты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ще 53 специалиста отмечены региональ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разования.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обратилась к участникам мероприятия. Она поздравила работников СПО и отметила, что важную роль в успехе подготовки будущ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грает человеческий фактор, а именно — любовь к своему делу.

— Когда мне пять с половиной лет назад доверили эту ответственную должность, мой предшественник напутствовал меня любить систему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я могу с уверенностью сказать, что за эти годы я не просто прониклась ею, но и полюбила всей душой. Ведь система образования — это не просто набор правил и инструкций, это наша общ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это будущее наших детей и,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будущее Сахалина, — рассказал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принял участие сенатор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го органа в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Он поздравил собравшихся и выразил благодарность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рабочих профессий за их вклад в подготовку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Сенатор отметил, что в системе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аботаю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стоящих» трудовых профессий.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а и Вероника Перельгин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ервиса, которая уже 25 лет работает в системе образования. Она поделилась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 Сичу и смотрю на эту церемонию, и сердце наполняется гордостью за коллег.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еще раз напоминает нам, учителям, насколько ценен наш труд. Когда я начинала сво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казалось, что моя работа — это просто уроки физкультуры. Но с годами я поняла, что мы, преподаватели, несем гораздо больш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Мы помогаем ребятам найти себя, поверить в свои силы, научиться преодолевать трудности. Видеть, как они растут, как достигают своих целей — это самое большое вознаграждение. Иногда бывает тяжело, когда не все получается, когда кажется, что тебя не слышат. Но такие моменты, как сегодня, дают силы идти дальше. Я чувствую себя частью чего-то большого и важного. Это не просто работа, это призвание. И я счастлива, что могу быть полезной, что могу вносить свой вклад в будущее наших ребят и нашей области, — сказала Вероника Перельгина.

Юбилей системы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л поводом для чествования тех, кто ежедневно вносит неоценимый вклад в подготовку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Сегодня в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ют 16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едлагающих студентам более 100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профессий и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рофессионалите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ёжь и дети» впервые стартовал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ластер. К 2027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одготовить более 600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м на актуальные потреб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Сахалинские бренды масштабируют бизнес благодаря господдержке

Остров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льготным кредитованием от центра «Мой бизнес» и открыли монобрендовые магазины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пособствуя развитию креативной индустрии региона.

Владелица своего дела Екатерина Мальцева сотрудничает с Центром с 2022 года, участвуя в различ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ах, а также получая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и поддержку в продвижении своего бизнеса. В этом году, благодаря своей положительной кредитной истории, бизнес-леди смогла получить беззалоговый заём.

— Еще в 2022 году, когда я стала финалистом бизнес-генератора и защищала свой проек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еред министр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я сказала о своей мечте: создать современный имидж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редством одежды. Моя мечта — открыть магазин в воздушной гавани. Этот путь занял три года. Все складывалось непросто, потребовалось много усилий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продукта. Но обстоятельств и поддержка со сторо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еня вдохновили и поддержали. Сейчас я имею возможность находиться в этом прекрас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каждый день, и вижу гостей, их горящие глаза, и они говорят: «Это не просто точка продаж, это место бренда», — отметил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ница.

Вторая компания представляет коллекцию одежды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фициального логотип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воем ассортименте. Благодаря заключенному соглашению с АНО «Сахалин — остров возможностей», получила право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этого знака.

— Мы обратились в центр «Мой бизнес» и оформили целевой микрозаём дл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на закупку второй партии одежды, представленной в нашем магазине. Получили 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о, специалисты Центра оказали полн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на всех этапах оформления документов, — поделилась основательница магазина Дарья Железняк.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центре «Мой бизнес» действует около десяти программ по льготному финансированию. С полной линейкой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по ссылке.

— Мы предоставляем около 400 бесплатных услуг, включа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 специально разработанные программы для развития ключевых компетенций, связанных с брендом. Также доступны микрозаймы на региональных условиях. Максимальная сумма займа — 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3 года, что позволяет расшир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или приобрести оборудование,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фонда развит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рассказал Павел Кононец.

Подробнее о финансовых продуктах и других услугах для бизнеса — на сайте mybusiness65.ru. Поддержку оказывают благодаря национальному проекту «Эффективная и конкурентная экономика», который инициировал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Его реализацию в регионе курирует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李대통령, '세계한인의날' 유공자 포상... 유분자 美 소망소사이어티 이사장 '무궁화장'

2일 오전 '세계한인의날 기념식' 참석권흥래 한국브라질장학회 고문 등 유공 동포 6명에게 직접 정부포상 수여무궁화장 수상자인 유분자 이사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 못해 李대통령, "복수국적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 지속 추진"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10월2일 오전 서울 그랜드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해 대표 인사말을 맡은 고탁희 중국한인회총연합회장 등 세계 각국의 한인회장과 재외동포 등 37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올해, 재외동포들의 뜨거운 애국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잃었던 빛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밝히며 동포사회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전환의 길목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함께해야 한다."며 "AI·반도체·문화콘텐츠 등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브랜드"라며 동포사회의 성취를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재외동포 권익 보호와 안전 보장, 차세대 동포 지원 확대, 복수국적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기념식은 해외 각지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서로를 잇고 역사를 지켜온 강한 매듭을 주제로 한 영상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2025년 91명의 유공동포 중 권흥래 한국브라질장학회 고문을 포함한 유공 동포 6명에게 직접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최고 포상인 국민훈

장 무궁화장은 미국동포인 유분자 소망소사이어티 이사장이 수상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07년 '웰빙, 웰다잉'을 모토로 소망소사이어티를 설립해, 한인 시니어들을 돕는 한편, 치매와 가족 간병 관련 의료 연구, 시신기증 캠페인 등을 통해 의학교육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최고 등급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유 이사장은 몸이 불편한 관계로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후 무대에 오른 뮤지컬배우 최정원과 고려인 어린이합창단은 '내 나라 대한'을 합창해 큰 울림을 전했다.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은 2017년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창단된 고려인 동포 자녀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다양한 공연을 통해 고려인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고려인마을의 정체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념식 마지막은 전 세계의 빛이 대한민국으로 결집되는 퍼포먼스를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이 이어지는 연결과 미래 도약의 상징적 메시지가 전해지며 막을 내렸다.

세계한인의 날은 매년 10월 5일로 2007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으며,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5000만 국민과 700만 재외동포가 함께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재외동포신문)

20여개국 재외언론인들 한자리에 한반도 평화 해법 모색한다

서울, 인천, 금산, 창원 등 전국 순회하며 대회 열려 "객관적 조명 통해 통일 담론 넓힌다"

전 세계 재외동포 언론인들이 2025년 10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서울에 모인다. 사단법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김명곤)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제27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및 제18회 국제심포지엄'을 서울, 인천, 충남 금산, 경남 창원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분단 80년, 한반도 평화와 재외언론의 역할'이다.

대회에는 세계 20여개국, 30여개 도시에서 활동 중인 40여개 재외언론사가 참가하며, 750만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국내에 전달하고,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평화통일 노력을 세계에 알리는 교량 역할을 모색하게 된다.

국제심포지엄, 한반도 평화 담론의 장이와 관련하여 10월 14일 오전 인천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국제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이다. 김성곤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전 국회의원)이 '분단 8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재외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패널토론을 벌인다. 이 자리에서는 단순한 보도를 넘어서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 인식 확산에 재외언론이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재외언론은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남북문제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통일 논의 과정에 사회통합과 갈등 해소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논

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취재투어 통해 지역 문화 보도 대회는 10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인천 강화, 충남 금산, 경남 창원과 진해, 마산 등을 순회하는 전국 취재투어로 이어진다. 현장에서는 지역 명소를 탐방 취재하고 지역 사회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할 예정이다. 공동취재한 기사들은 협회가 운영하는 <동포저널> 및 동포언론사에 송고하고, 추후 협회 계간지 <글로벌 코리아>에도 실린다.

개막식은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김성곤 이사장, 여야 재외동포 관련 국회의원 등 다수의 정계 인사들과 국내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청, 인천시, 함평군,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세계한인네트워크, 자유언론실천재단, 사단법인 평화, 글로벌장보고재단, 금산 서대산추모공원, 미국 잭슨빌한미문화원 등 20여개 단체가 공동 후원한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2002년 첫 대회 이후 매년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재외언론인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법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언협 공동취재단)

출처 : 동포저널 (DONGPOJOURNAL) (<https://www.dongpojourn.com>)

해외 한인회장들, "현장 불편, 정부가 직접 듣고 풀어야"

비자·금융·재외선거·이민사 보존 등 생활 밀착형 개선 요구 이어져

'2025 세계한인회장대회'가 10월 1일 오후,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한인회장과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실질적 현안에 대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

특히 각국 한인회장들은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생생히 전달하며, 비자 제도부터 금융, 선거, 문화기록 사업까지 폭넓은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결혼 이민자 비자, 한인 사회 전체를 위축시킨다"

미얀마 한인회장은 동남아 지역 결혼 이민자들이 비자 심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최근 한류 영향으로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현지인이 늘고 있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사와 발급 지연으로 한인 사회 전체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공관은 법무부 지침 범위 내에서만 심사를 진행해 예외 상황에 대한 유연성이 거의 없다"며 "비자 심사 권한의 분산 또는 지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결혼 이민자의 비자 요건은 이미 완화됐으며, 실제 심사는 공관의 영사 재량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인회장은 "재량의 문제라기보다, 법무부가 설정한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좁아 공관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다"며 기준 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외화통장 규정, 영주권자 중심으로 바뀌어 불편 초래"

인도 첸나이 한인회장 조성현 씨는 외화통장(대외계정) 개설 요건이 최근 변경되면서 재외 국민의 금융 활동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한 국민도 외화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영주권자에게만 허용되면서 기존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거주자가 일반 국내 통장을 사용할 경우, 환율 손실과 송금 지연 등 불이익이 크다"며, 국세청의 '183일 체류 기준'을 외화통장 규정에도 적용해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해당 사안은 금융 관련 부처의 소관일 가능

성이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건의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재외선거 운영, 예산 대비 효과 미흡... 구조적 개선 시급"

미국 휴스턴 교민 장헬렌 씨는 재외선거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휴스턴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1870명이 투표했지만, 인력 과건과 투표소 운영 등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 1인당 약 1000달러가 소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예산 지출이 과연 정당인지 납세자 입장에서 의문"이라며 "실질적인 참여율 제고 방안이 없다면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 기준 1인당 약 10만원, 국회의원 선거 기준 약 13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지역에 상관 없이 공정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저조한 투표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인 유권자 참여'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국적자만 참여 가능하며, 지방선거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민사 자료, 흩어지기 전 정부가 나서야"

뉴욕 브루클린 한인회 박상원 회장은 미주 지역 한인사회에 축적된 이민사 관련 기록과 유물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2003년 하와이 이민 100주년 이후 축적된 방대한 자료들이 있지만, 이를 본국으로 이관하거나 체계적으로 수집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운송 절차가 복잡하고, 기증 이후의 보존이나 활용 여부가 불확실해 기증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며 "자료 수집과 활용에 정부와 공공기관, 특히 이민사 박물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재 고용철 기자/정리 김명곤 기자) 코리아워클리-플로리다

9 октября – День корейского алфавита

Хангыль –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Кореи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анице 4)

Седжон также учел, что новая письменность может послужить толчком для превращения страны в процветающее, развитое государство. Необходимо лишь дать знания народу. Он заявил, что новое письмо предназначено исключительно для воспитания простолюдинов. Новая письменност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высила уровень грамотности среди простых людей, особенно среди женщин.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король Седжон был уникальной личностью, что-то сродни с великим итальянцем Леонардо да Винчи, чье имя вошло в историю, как знаменующее эпоху Возрождения – золотой век Европы. Король обладал творческим мышлением, обширными знаниями в области искусства, медицины, истории и проявлял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лингвистике, проводил глубо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области фонетики и изучал грамматику (лингвистическую дисциплину, изучающую взаимосвязи между письменными знаками и звуками речи). Используя существующую теорию в этой области, отобрав её суть, он использовал это для создания нов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Зву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тличающиеся от китайских, не согласуются с иероглифами, которыми записывают китайский язык. Поэтому среди простого народа много таких, кто имеет желание сказать, но не способен выразить свои мысли», – вот так, ни



меньше, ни больше. Не будем забывать, по сути, это была политическая установка – отделение от Китая, ослабление его влияния, которое в тот период достигло высочайшего уровня, благодаря проникновению конфуцианства, — таковы были истинные цели королевской реформы.

Появление и постепенн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хангыля продолжилось примерно 50 лет после вве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алфавита и приходилось на время правления самого Седжона, и нескольких наследовавших ему правителей Кореи. Не будем обольщаться, конечно, были противники в лице конфуцианских ученых. Да, и после смерти Седжона в Корею с усилением влияния неоконфуцианства интерес к нов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начал угасать. Дальнейшее будущее хангыля было непростым. Но сейчас не об этом.

История возникновения хангыля – это яркий пример того, как рожд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является основой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и нации, сохранения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целого этноса, а то и самого 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Ким Ен Хи, этнограф
Фото: Король-ван Седжон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발표한 행복한 모성의 해를 맞아 기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디지털기술개발부와 지역 디지털 개혁센터, 사할린 인공지능센터의 주최로 이 경연이 개최됐다.

이번 경연은 예술과 현대적인 공학을 결합하면서 참가자들은 신경망을 이용한 모양을 만들고, 다음 수작업을 통해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완벽한 예술적 작품을 완성시켜야 한다. 참가 신청은 11월 21일까지며, 기획 공식사이트에서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연령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사할린 주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이 경연이 주민들의 창의적인 자기표현의 장이 되며,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주민들에게는 인공지능기술과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творческий конкурс «Искусство материнской любв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пустили творческий конкурс «Искусство материнской любви». Его организовали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цифрового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Центр региональной цифров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и Сахалинский центр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Проект приурочен к Году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который объя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онкурс объединяет искусство и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ит создать изображение с помощью нейросетей, а затем доработать его вручную, превращая цифровую основу в полноценную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работу.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жно до 21 ноября, заполнив форму на сайте проекта.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могут все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озраст и опыт значения не имеют. Органи-

заторы отмечают, что конкурс станет площадкой для творческого самовыражения и позволит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ближ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технологиям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곰 조심하세요!

9월 27일(토) 포로나이스크 지역에서 곰이 목격된 가운데 곰은 옛 종이공장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 이에 지역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낮에 오후츠크예 도로 노선 인근에서 전문가들이 두 마리의 곰을 처리했다.

곰들은 드론과 감시카메라와 미끼를 통해 2단계에 걸쳐 비영리 원예농업협회 구역에서 포획됐으며, 처음 전문가들이 위협이 되는 첫째 곰을 처리하고, 다음 둘째 곰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찾아내어 처리했다.

산림수렵청은 곰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극단의 경우에만 제거작업이 이뤄진다고 강조한 가운데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오직 주민의 안전에 있다.

비영리 원예농업협회 부근으로 곰이 출몰하는 것은 식량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야생의 자연이 가깝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전에 주의 지침을 준수하고, 곰이 출몰할 시 즉각 112로 신고하도록 당부하면서 전문가들은 곰과 새로이 마주칠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고, 계속 경계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Осторожно, медведи!

В субботу, 27 сентября, в Поронайске заметили медведя. Косолапый бродил на территории бывшего бумзавода, поэтому местным жителям рекомендовали проявлять бдительность и осторожность. Этим же днем близ охотской трассы специалисты ликвидировали двух опасных медведей. Хищников отловили с помощью дрона, фотоловушек и приманок в два этап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доводческих товариществ. Сначала специалисты ликвидировали первую угрозу, а затем продолжили мониторинг и обнаружили второго медведя. В агентстве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подчеркивают: решение об изъятии принимают только в

крайних случаях, когда нет других способов защитить людей. Главная цель таких операций — безопас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Выход животных к СНТ спровоцировала доступная пища и близость дикой природы. Жителям напоминают: важно соблюдать меры предосторожности и сразу сообщать о появлении медведей вблизи домов по телефону 112. Специалисты не исключают новых встреч с хищниками и призывают сохранять бдительность.

2026년의 명절과 휴일, 29일간

2026년에 29일의 휴일과 명절이 러시아의 근로자들을 기다리는 가운데 해당 법령에 러시아 연방 미하일 이슈스틴 총리가 승인했다. 가장 먼저 전통적인 연휴인 새해 명절은 12일간으로 정부에서도 내년 휴무일을 승인했다.

새해 연휴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월 11일까지 12일간 이어진다.

2월21일 - 23일까지 3일간 연휴, 3월 7일 - 9일까지 3일간 연휴, 3월 1일 - 3일과 5월 9일 - 11일까지 6일간 연휴, 6월 12일 - 14일까지 3일간 연휴, 11월 4일 하루 휴무, 12월 31일 휴무, 1월 3일과 4일의 공휴일은 1월 9일(금)과 12월 31일(목)로 대체된다.

Россиян ожидают 29 праздничных и выходных дней в 2026 году

В 2026 году работающих россиян ожидают 29 праздничных и выходных дней.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одписа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Ф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Больше всего выходных традиционно выпадают на новогодние праздники — 12 дней.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утвердили следующие дни отдыха:

с 31 декабря 2025 года по 11 января 2026 года — 12 дней; с 21 по 23 февраля — 3 дня; с 7 по 9 марта — 3 дня; с 1 по 3 мая и с 9 по 11 мая — 6 дней; с 12 по 14 июня — 3 дня; 4 ноября — 1 день; 31 декабря — 1 день.

Нерабочие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3 и 4 января перенесут на пятницу, 9 января, и четверг, 31 декабр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полугодие — 885 руб. 9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l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